

『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Sikuquanshuzongmutiyao*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2.4 저자표시 |
| 2. 『사고전서총목제요』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 2.5 저작역할어표시 |
| 2.1 표제표시 |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
| 2.2 권수표시 | 3. 결 론 |
| 2.3 판본표시 | <참고문헌> |

<초 록>

본 논문은 청(淸) 건륭연간(乾隆年間)에 기윤(紀昀) 등이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판본, 저자, 저작역할어,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사고전서총목제요』는 대단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 방식을 설정하여 중국 목록기술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要語: 기윤, 목록기술방식, 사고전서총목, 사고전서총목제요, 청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Sikuquanshuzongmutiyao* which was published by Ji-yun, Ch'ienlung reign, Qing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in respect to title, volume number, edition, written age, name of author,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and noteworthy examples. The great significance of *Sikuquanshuzongmutiyao*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considerably unified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and compiled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China.

Key words: Bibliographical description, Ji-yun, *Sikuquanshuzongmu*, *Sikuquanshuzongmutiyao*, Qing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 접수일: 2017년 3월 9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1. 서론

『사고전서(四庫全書)』는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황명으로 당시 현존한 고금의 문헌을 수집하고 필사하여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정리한 일대 총서(叢書)이다. 이 사업은 1773년(건륭 38)에 시작하여 1781년(건륭 46)에 완성되었는데, 문연각(文淵閣)에 소장되어 있는 『사고전서』가 바로 그 최초의 사본이다.¹⁾ 『사고전서』의 편찬진은 그 후 1787년(건륭 52)까지 6질을 더 필사하여 이를 문소각(文溯閣), 문원각(文源閣), 문진각(文津閣), 문종각(文宗閣), 문회각(文匯閣), 문란각(文瀾閣)에 각각 한 부씩 수장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당시 기운(紀昀)을 총찬관(總纂官)으로 대진(戴震), 소진함(邵晉涵), 주영년(周永年) 등 당대의 학자 360여 명이 그 편찬에 동원되었다.²⁾

이 『사고전서』의 편찬과정에서 수록 도서의 서지와 해제를 기술했는데 이를 모아서 편찬한 것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200권이다. 이 『사고전서총목제요』는 1773년(건륭 38)부터 편수(編修)하기 시작하여 1781년(건륭 46)에 초고(初稿)를 완성하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다음 1795년(건륭 60)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³⁾ 이 목록은 당시까지 편찬된 중국 역사상 최대의 관찬목록이며, 기존 목록들을 토대로 중국 목록학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명칭 또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사고총목(四庫總目)』, 『총목제요(總目提要)』,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 『사고제요(四庫提要)』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의 학술지에 발표된 『사고전서총목제요』에 관한 연구 성과 587종을 분석한 결과,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오류 정정, 문헌학 연구, 학술비평 또는 학술 사상 등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⁴⁾ 한국의 연구 성과를 보면, 서지학, 문학, 경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필자가 중국과 한국의 연구 성과를 조사했는데, 『사고전서총목제요』

- 1) 呂堅, “『四庫全書』七閣成書時間考,” 『文獻』 3(1984. 3), 133-137.
廖勇, “文溯閣『四庫全書』成書時間考,” 『廊坊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30(2)(2014. 4), 63.
- 2) 鄭錫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32-233.
趙秉忠, 白新良, “四庫全書總目簡介,” 『歷史教學』 6(1991), 54.
李晴, “淺論『四庫全書』在圖書館學方面的學術價值,”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3(4)(1996), 34.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の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5(2011. 9), 60-61.
리상용,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2013. 12), 153.
- 3) 崔富章, “『四庫全書總目』武英殿本刊竣年月考察,”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6(1)(2006. 1), 105.
- 4) 程惠新, 陳東輝, “2000-2014年『四庫全書總目』研究綜述,” 『圖書館工作與研究』 3(2016), 67-70.
- 5) 이계우, “清代『四庫全書總目』을 통해 본 ‘晚明小品’의 현상과 평가,” 『中國學研究』 26(2003. 12), 251-273.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の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5(2011. 9), 63-66.
박영순, “『四庫全書總目』詩文評類提要의 문학 비평적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32(2005. 6), 427-445.

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전적(典籍) 3,461종 79,309권과 존목(存目) 6,793종 93,565권⁶⁾을 수록하고, 개개 저작에 대해서 다양하게 목록 기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고전서총목제요』⁷⁾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구해 보고자 한다.

2. 『사고전서총목제요』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사고전서총목제요』(이하 『총목』이라 함)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예:

激水志 八卷 浙江巡撫採進本

宋常棠撰 棠字召仲 號竹窗 海鹽人 仕履未詳 激水在海鹽縣東三十六里 水經所謂谷水流出爲激浦者是也 唐開元五年 張廷珪奏置鎮 宋紹定三年 監激浦鎮稅修職郎羅叔韶使棠爲誌 凡十五門 曰地理 曰山 曰水 曰廡舍 曰坊巷 曰坊場 曰軍寨 曰亭堂 曰橋梁 曰學校 曰寺廟 曰古跡 曰物產 曰碑記 曰詩詠 而冠以輿圖 前有叔韶及棠二序 敘述簡核 綱目該備 而八卷之書 爲頁止四十有四 明韓邦靖撰朝邑縣志 言約事盡 世以爲絕特之作 今觀是編 乃知其源出於此 可謂體例精嚴 藻不妄抒者矣 謹案 激水雖見水經注 然是書乃志地 非志水 不可入之山水中 以鎮亦郡縣之分區 故附綴於都會郡縣類焉

-
- 趙永來, “『사고전서총목』 사부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사지목록의 사부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4(2009. 12), 491-527.
- 김동민,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 『四庫提要』 『經部』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7(2011. 8), 221-250.
-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부에 보이는 학파별 분류와 평가: 儒家類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7(2011. 8), 251-282.
-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 『동양철학』 35(2011. 7), 99-126.
-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の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5(2011. 9), 59-86.
-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2012. 12), 111-153.
- 趙永來,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正史의 『地理志』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의 地理類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2(2012. 9), 155-192.
- 당윤희, “청대(清代) 사고관신(四庫館臣)의 유학(儒學) 사상 고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子부(子部) 유가류(儒家類)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50(2012. 10), 401-440.
- 金鎬, “『四庫全書總目·集部總敘』와 『楚辭類敘』 譯注와 문학관,” 『中國語文論譯叢刊』 38(2016. 1), 459-487.
- 6) 白福春, 劉琨, “『四庫全書總目』 收錄古籍數量及卷數訂正,” 『圖書館學刊』 4(2016), 115-116.
- 7)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저본은 문연각 『四庫全書』 전자판에 수록된 『四庫全書總目』으로서 이 외의 판본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상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예를 분석하면, ‘澉水志’는 표제를, ‘八卷’은 권수를, 浙江巡撫採進本은 판본을, ‘宋’은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를, ‘常棠’은 저자명을, ‘撰’은 저작역할어를 ‘棠字召仲 號竹窗 海鹽人 仕履未詳 … 可謂體例精嚴 藻不妄抒者矣’는 해제를, ‘謹案’ 이하는 안어(案語)를 각각 가리킨다. 즉, 『총목』에 수록된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개 표제, 권수, 판본,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안어는 필요할 경우에만 기술하여 대부분의 서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⁸⁾와 안어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총목』에서는 표제표시에 있어서 함정서(欽定書), 어정서(御定書), 어제서(御製書), 어찬서(御纂書) 등에 대해 ‘함정(欽定)’, ‘어정(御定)’, ‘어제(御製)’, ‘어찬(御纂)’, ‘어주(御注)’ 등의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도 있지만,

예:

欽定同文韻統
御定通鑑綱目三編
御製日知薈說
御纂孝經集注
御注孝經

서명에서 관기하지 않고, 저자표시에서 御定, 御製, 御撰, 御注 등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康熙字典 四十二卷 康熙五十五年 聖祖仁皇帝御定
官箴 一卷 左都御史張若淮家藏本 明宣宗章皇帝御製
大狩龍飛錄 二卷 左都御史張若淮家藏本 明世宗肅皇帝御撰
孝經正義 三卷 內府藏本 唐元宗明皇帝御注 宋邢昺疏

특정 서명이 별칭을 지닌 경우 ‘一名’을 관기하여 그 별칭을 제시해 준 사례도 있다. 그밖에 표제표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예:

朝鮮史畧 六卷 浙江鮑士恭家藏本 一名東國史畧
金圖經 一卷 兩淮鹽政採進本 一名金國志

8) 목록기술요소의 분석과정에서 일부 해제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2.2 권수표시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권수표시는 완질(完帙)의 권수를 표시하되,

예:

尙書正義 二十卷
唐六典 三十卷

완질(完帙)이 아닌 경우 해제에서 그 내용을 밝혀준 경우도 있으며,

예:

漕河圖志 三卷 浙江鄭大節家藏本 明王瓊撰 … 惜原本八卷 此本止存三卷 非完帙矣
太白陰經 八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唐李筌撰 … 考唐書藝文志 宋史藝文志 皆云太白陰
經十卷 而此本止八卷 疑非完帙

권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無卷數’라고 표시하였다.

예:

禹貢詳畧 無卷數
周易私錄 無卷數

2.3 판본표시

여기에서 판본 표시는 목판본, 활자본 등과 같은 판의 명칭이나 초판, 재판 등과 같은 판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록의 대상이 된 서적의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다.⁹⁾ 『총목』에서는 다양하게 판본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동 목록이 편찬된 청나라 때 편찬된 흠정서, 어정서, 어찬서, 명찬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본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¹⁰⁾ 『총목』에 표시된

9) 鄭錫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47-251.

樊美珍, 馮春生, “『四庫全書總目』 著錄底本來源統計,” 上海高校圖書情報學刊季刊(1995.6), 54.

10) 학자에 따라 勅撰本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목록기술상에 별도의 판본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사례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예 :

欽定繙繹五經 五十八卷 四書 二十九卷 乾隆二十年初欽定
御選唐宋詩醇 四十七卷 乾隆十五年 御定
御纂周易述義 十卷 乾隆二十年奉勅撰

관본을 유형에 따라 관원채진본(官員採進本), 개인정송본(個人呈送本), 통행본(通行本), 내부분(內府本), 영락대전본(永樂大典本)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원채진본

관원채진본(官員採進本)은 각 지역의 관원이 해당 지역에서 서적을 찾아 모아서 진상한 서적을 의미한다. 대개 '관직명+採進本'의 형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예:

易經通論 十二卷 浙江巡撫採進本
近思錄 十四卷 直隸總督採進本
東易問 八卷 奉天府尹採進本

2) 개인정송본

개인정송본(個人呈送本)은 개인 소장가 또는 장서가가 정송(呈送)한 서적을 의미한다. 지역명에 개인의 성명 또는 서재명이나 장서각명을 붙여서, 대개 '지역명+성명+家藏本', '관직명+성명+家藏本', '지역명+아무개家+장서각명+藏本' 등의 형식을 취했는데,

예:

지역명+성명+家藏本

易學筮貞 四卷 浙江吳玉墀家藏本
易通 一卷 江蘇周厚培家藏本
天童寺集 二卷 兩淮馬裕家藏本

관직명+성명+家藏本

易經纂言 無卷數 兵部侍郎紀昀家藏本
易漢學 八卷 光祿寺卿陸錫熊家藏本
讀易餘言 五卷 副都御史黃登賢家藏本

지역명+아무개家+장서각명+藏本

太白陰經 八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周易經傳集解 三十六卷 浙江朱彝尊家曝書亭藏本

이밖에 서적의 성격에 따라서 '관직명+성명+購進本', '관직명+성명+刊本 또는 家刊本', '관직명+성명+進呈本' 등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

관직명+성명+購進本

扈從西巡日錄 一卷 大學士英廉購進本

관직명+성명+刊本 또는 家刊本

易例 二卷 桂林府同知李文藻刊本

山左明詩鈔 三十五卷 廣東潮陽縣知縣李文藻家刊本

관직명+성명+進呈本

松泉文集 二十卷 詩集 二十六卷 工部侍郎汪承霈進呈本

3) 통행본

통행본(通行本)은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적으로서¹¹⁾ ‘通行本’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예:

毛詩草木鳥獸蟲魚疏 二卷 通行本

詩經大全 二十卷 通行本

春秋傳 三十卷 通行本

4) 내부분

내부분(內府本)은 궁중에서 소장하거나 판각한 서적을 말한다. 주로 ‘內府藏本’이라고 표시하고, ‘內部刊本’ 또는 ‘內廷藏本’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橫渠易說 三卷 內府藏本

史記 一百三十卷 內府刊本

季漢書 五十六卷 內廷藏本

5) 永樂大典本

영락대전본은 『영락대전』에 수록된 서적을 뽑아 낸 것으로서 ‘永樂大典本’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예:

周官總義 三十卷 永樂大典本

春秋釋例 十五卷 永樂大典本

崇文總目 十二卷 永樂大典本

11) 紀昀 等, 『四庫全書總目』 卷首3.(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其坊刻之書不可專題一家者 則註曰通行本”

2.4 저자표시

2.4.1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는 원래 저자의 생몰시기를 표시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예:

儀禮註疏 十七卷 內府藏本 漢鄭元¹²⁾(실은 玄)註 唐賈公彥疏
周易不我解 二卷 浙江鄭大節家藏本 明徐體乾撰

『총목』이 편찬된 시기인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國朝’라고 표시하고,

예:

左傳杜解補正 三卷 通行本 國朝顧炎武撰
河圖洛書原舛編 一卷 浙江巡撫採進本 國朝毛奇齡撰

청나라 때 간행된 어정서, 어찬서 등의 경우 역조(歷朝)명을 생략하고 연호(年號)를 붙였다.

예:

御纂孝經集注 一卷 雍正五年 世宗憲皇帝御定
御注孝經 一卷 順治十三年 世祖章皇帝御撰

서양인이 편찬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西洋人’ 또는 ‘西洋’이란 말을 관기한 경우도 있고,

예:

職方外紀 五卷 兩江總督採進本 明西洋人艾儒畧撰
幾何原本 六卷 兩江總督採進本 西洋歐几里得撰 利瑪竇譯而徐光啓所筆受也

‘西洋人’이란 사실을 해제에서 설명한 경우도 있다.

예:

西儒耳目資 無卷數 兩江總督採進本 明金尼閣撰 金尼閣字四表 西洋人
坤輿圖說 二卷 內府藏本 國朝南懷仁撰 懷仁西洋人
二十五言 一卷 浙江巡撫採進本 明利瑪竇撰 西洋人之入中國自利瑪竇始

이밖에 시대를 모르는 경우, ‘不著時代’, ‘莫詳時代’, ‘無時代’, ‘原本不題撰人時代’ 등 다양하게

12) ‘玄’을 ‘元’이라고 필사한 것은 ‘玄’자를 피휘(避諱)하여 ‘元’자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예 가운데 ‘玄’자를 피휘하여 ‘元’자로 쓴 것은 모두 ‘玄’으로 고쳐서 표기하였다.

표시하고 있으며,

예:

大易衍說 無卷數 安徽巡撫採進本 不著撰人名氏 亦不著時代 蓋明人舊抄本也
三國志辨誤 三卷 兩淮鹽政採進本 不著撰人名氏 亦莫詳時代
漢隸分韻 七卷 江蘇巡撫採進本 不著撰人名氏 亦無時代
張邱建算經 三卷 吏部侍郎王杰家藏本 原本不題撰人時代

아예 그 시대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

古文孝經指解 一卷 內府藏本 不著編輯者名氏
孫子參同 五卷 江蘇巡撫採進本 此本不知何人所輯

이 경우는 대개 저자가 불분명하여 시대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다.

2.4.2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와 판본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는데¹³⁾, 일반적으로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예:

陶淵明集 八卷 內府藏本 晉陶潛撰
九經誤字 一卷 內府藏本 國朝顧炎武撰

저자가 다른 이름을 지닌 경우에는 '一名'을 관기한 다음에 그 해당 이름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冷齋夜話 十卷 江蘇巡撫採進本 宋僧惠洪撰 惠洪一名德洪
易大象說錄 二卷 浙江吳玉墀家藏本 國朝吳舒晷撰 舒晷一名逸

그러나 위의 사례 외에 『총목』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해당 황제를 관기하고 '御定', '御撰', '御製', '御纂', '御注', '御選' 등을 붙여서 표시하였다.

13)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저자명표시를 표제와 권수 다음에 한 줄로 기술하였다.

예:

御定佩文韻府 四百四十四卷 康熙五十年 聖祖仁皇帝御定
 大狩龍飛錄 二卷 左都御史張若淮家藏本 明世宗肅皇帝御撰
 官箴 一卷 左都御史張若淮家藏本 明宣宗章皇帝御製
 御纂周易折中 二十二卷 康熙五十四年 聖祖仁皇帝御纂
 孝經正義 三卷 內府藏本 唐元宗明皇帝御注 宋邢昺疏
 御選古文淵鑿 六十四卷 康熙二十四年聖祖仁皇帝御選 內閣學士徐乾學等奉勅編註

2) 명찬서(命撰書)는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同+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同+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월+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月+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臣下名 + 等 + 奉勅 + 著作役割語

隋書 八十五卷 內府刊本 唐魏徵等奉勅撰
 重修廣韻 五卷 兩淮馬裕家藏本 宋陳彭年邱雍等奉勅撰

官職名 + 臣下名 + 等 + 奉勅 + 著作役割語

元豐九域志 十卷 兩江總督採進本 宋承議郎知制誥丹陽王存等奉勅撰
 明一統志 九十卷 內府藏本 明吏部尙書兼翰林院學士李賢等奉勅撰
 欽定盤山志 二十一卷 國朝大學士蔣溥等奉勅撰

臣下名 + 同 + 奉勅 + 著作役割語

明集禮 五十三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明徐一夔梁寅劉于周於諒胡行簡劉宗弼董彝蔡琛滕公瑛曾魯同奉勅撰

年號 + 年次 + 奉勅 + 著作役割語

欽定春秋傳說彙纂 三十八卷 康熙三十八年奉勅撰
 御覽經史講義 三十一卷 乾隆十四年奉勅編

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文苑英華 一千卷 御史劉錫嘏家藏本 宋太平興國七年李昉扈蒙徐鉉宋白等奉勅編
歷代名臣奏議 三百五十卷 兩淮鹽政採進本 明永樂十四年黃淮楊士奇等奉勅編

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四書大全 三十六卷 通行本 明永樂十三年翰林學士胡廣等奉勅撰
平定三逆方畧 六十卷 康熙二十一年大學士勒德洪等奉勅撰

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同+奉勅+著作役割語

御製樂善堂文集定本 三十卷 乾隆二十三年協辦大學士戶部尙書蔣溥等同奉勅重編

年號+年月+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閹黨逆案 一卷 兩淮鹽政採進本 明崇禎二年正月大學士韓爌等奉勅定

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聖濟總錄纂要 二十六卷 浙江巡撫採進本 宋政和中奉勅編
洪武正韻 十六卷 江蘇周厚培家藏本 明洪武中奉勅撰

年號+中+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公子書 三卷 永樂大典本 明洪武中熊鼎等奉勅撰
春秋大全 七十卷 內府藏本 明永樂中胡廣等奉勅撰

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宣德鼎彝譜 八卷 浙江鮑士恭家藏本 明宣德中禮部尙書呂震等奉勅編次

3) 지위나 품격이 빼어난 인물인 경우, 저자의 성 다음에 이름 대신 덕망 높은 큰 스승을 가리키는 존칭인 '子'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성+자(姓+子)' 또는 '호+성+자(號+姓+子)'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姓+子の 경우

孝經刊誤 一卷 通行本 宋朱子撰
橫渠易說 三卷 內府藏本 宋張子撰
皇極經世書 十二卷 通行本 宋邵子撰

號+姓+子の 경우

易傳 四卷 直隸總督採進本 宋伊川程子撰

4) 여성저작의 경우 ‘성+명(姓+名)’ 또는 ‘성+씨(姓+氏)’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예:

漱玉詞 一卷 江蘇周厚培家藏本 宋李清照撰
女孝經 一卷 內府藏本 唐鄭氏撰

황후의 경우는 ‘시호+황후(諡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예:

內訓 一卷 兩江總督採進本 明仁孝文皇后撰
勸善書 二十卷 永樂大典本 明仁孝皇后撰

5)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釋’ 또는 ‘僧’을 관기하였다.

예:

廣宏明集 三十卷 兵部侍郎紀昀家藏本 唐釋道宣撰
華陽宮記事 一卷 浙江汪啓淑家藏本 宋僧祖秀撰

6)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上蔡語錄 三卷 浙江巡撫採進本 宋曾恬胡安國所錄謝良佐語 朱子又爲刪定者也
庭幃雜錄 二卷 編修程晉芳家藏本 明嘉善袁衷等錄其父母之訓而錢曉所訂定者也
經問 十八卷 經問補 三卷 浙江巡撫採進本 國朝毛奇齡說經之詞 其門人錄之成編

7)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밖에 부저편집자명씨(不著編輯者名氏), 부저찬인성명(不著撰人姓名), 부지하인소편(不知何人所編), 부저편집인명씨(不著編輯人名氏), 부저편록인명씨(不著編錄人名氏), 부저찬인성씨(不著撰人姓氏)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

射易淡詠 二卷 江蘇周厚培家藏本 不著撰人名氏
古文孝經指解 一卷 內府藏本 不著編輯者名氏
南內記 一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不著撰人姓名
春秋四傳 三十八卷 內府藏本 不知何人所編
三國志文類 六十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不著編輯人名氏
毛詩集解 四十二卷 內府藏本 不著編錄人名氏
八閩政議 三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不著撰人姓氏

이밖에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저자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 해제에서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자의 성(姓)이나 생존시기(生存時期)를 기술한 경우도 있다.

예:

鄭志 三卷 補遺一卷 兩江總督採進本 案隋書經籍志 鄭志十一卷 魏侍中鄭小同撰
 尚書直指 六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不著撰人名氏 朱彝尊經義考曰 是書徐文肅爲東宮講官時
 所進 未曾刊行 亦未署名 其後 中璫錢能從宮中携出 遂鏤板 於時錢溥劉宣序之 童軒跋之 皆不
 知爲文肅所著 予從曹侍郎溶家見之 因爲標出云云 則此書乃徐善述撰也 善述字好古 天台人

2.5 저작역할어표시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주(註)’, ‘주(注)’, ‘소(疏)’, ‘산정(刪定)’, ‘감수(監修)’, ‘전(箋)’, ‘속(續)’, ‘교보(校補)’, ‘속수(續修)’, ‘속증(續增)’, ‘집주(集注)’, ‘산정(刪正)’, ‘보(補)’, ‘산보(刪補)’, ‘증보(增補)’, ‘역(譯)’, ‘역진(譯進)’, ‘전(傳)’, ‘편차(編次)’, ‘보집(補輯)’, ‘해고(解詁)’, ‘집해(集解)’, ‘참수(參修)’, ‘중수(重修)’, ‘중편(重編)’, ‘중집(重輯)’, ‘속편(續編)’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예:

周易玩辭 十六卷 兩江總督採進本 宋項安世撰
 論學繩尺 十卷 安徽巡撫採進本 宋魏天應編 林子長註
 周禮注疏 四十二卷 內府藏本 漢鄭玄注 唐賈公彥疏
 中庸輯畧 二卷 江蘇巡撫採進本 宋石塾編朱子刪定
 江南通志 二百卷 通行本 國朝兵部尚書兩江總督趙宏恩等監修
 李義山文集箋注 十卷 通行本 國朝徐樹穀箋 徐炯注
 聲律發蒙 五卷 內府藏本 元祝明撰 潘瑛續 明劉節校補
 天台縣志 二十卷 兩淮馬裕家藏本 明張宏代撰 胡來聘續修
 六經類聚 四卷 江蘇周厚培家藏本 明徐常吉編 陶元良續增
 法言集註 十卷 通行本 漢揚雄撰 宋司馬光集注
 嘉靖貴州通志 十二卷 兩淮鹽政採進本 明張道撰 謝東山刪正
 六經圖 六卷 通行本 宋楊甲撰 毛邦翰補
 棠陰比事 一卷 附錄一卷 浙江巡撫採進本 宋桂萬榮撰 明吳訥刪補
 江防考 六卷 浙江汪啓淑家藏本 明吳時來撰 王篆增補
 大唐西域記 十二卷 浙江鮑士恭家藏本 唐釋玄奘譯 辨機撰
 欽定蒙古源流 八卷 乾隆四十二年奉勅譯進
 毛詩正義 四十卷 內府藏本 漢毛亨傳 鄭玄箋 唐孔穎達疏
 宣德鼎彝譜 八卷 浙江鮑士恭家藏本 明宣德中禮部尚書呂震等奉勅編次
 神應經 一卷 浙江朱彝尊家曝書亭藏本 明陳會撰 劉瑾補輯
 春秋公羊傳註疏 二十八卷 內府藏本 漢公羊壽傳 何休解詁 唐徐彥疏
 春秋穀梁傳注疏 二十卷 內府藏本 晉范甯集解 唐楊士勛疏
 嘉靖廣西通志 六十卷 兩淮鹽政採進本 明黃佐撰 林富參修

續刻麻姑山志 十七卷 浙江汪啓淑家藏本 明左宗鄧撰 國朝何天爵邱時彬重修
靈隱寺志 八卷 兩淮馬裕家藏本 國朝孫治撰 徐增重編
夢林玄解 三十四卷 兩淮鹽政採進本 明陳士元撰 何棟如重輯
王氏書苑 十卷 書苑補益 八卷 浙江鮑士恭家藏本 是書亦明王世貞編 詹景鳳續編

이밖에 저작역할어를 명사형과 서술적 용어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예:

漢書 一百二十卷 內府刊刊本 漢班固撰 其妹班昭續成之
二馮評點才調集 十卷 內府藏本 國朝馮舒馮班所評點 其猶子武合刊之

2.6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총목』 목록기술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6.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표시하거나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 또는 ‘등동+저작역할어(等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同+著作役割語

南溪書院志 四卷 兩淮鹽政採進本 明葉廷祥 郭以隆 紀延譽 陳翹卿同撰
至聖編年世紀 二十四卷 江蘇巡撫採進本 國朝李灼黃晟同編

等+著作役割語

西方要記 一卷 編修程晉芳家藏本 國朝西洋人利類思安文思南懷仁等撰
六經圖 十六卷 通行本 國朝江爲龍等編
貴州通志 四十六卷 通行本 國朝大學士鄂爾泰等監修

等同+著作役割語

西湖志纂 十二卷 內府藏本 國朝大學士梁詩正禮部尙書銜沈德潛等同撰
大德昌國州圖志 七卷 浙江范懋柱家天一閣藏本 元馮復京郭薦等同撰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동찬(同撰)이라고 표시하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예:
近思錄 十四卷 直隸總督採進本 宋朱子與呂祖謙同撰

3) 역할이 다른 저자표시 사이에 ‘이(而)’자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二程遺書 二十五卷 附錄一卷 江西巡撫採進本 宋二程子門人所記而朱子復次錄之者也
二程外書 十二卷 江西巡撫採進本 亦二程子門人所記而朱子編次之
幾何原本 六卷 兩江總督採進本 西洋歐几里得撰 利瑪竇譯而徐光啓所筆受也

2.6.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唐詩鼓吹箋註 十卷 通行本 金元好問編 國朝錢朝鼎王俊臣註 王清臣陸貽典箋
春秋公羊傳註疏 二十八卷 內府藏本 漢公羊壽傳 何休解詁 唐徐彥疏

2.6.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나온 경우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온 경우,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하고 해제한 사례가 있고, 그 서적을 각각 해제한 사례도 있다.

예:
동일유목에서 동일 저자의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기하고 해제한 경우:

經部 四書類
大學章句一卷 論語集註十卷 孟子集註七卷 中庸章句一卷 通行本 宋朱子撰

동일 유목 내에서 동일 저자의 저작을 각각 해제한 경우:

經部 春秋類
春秋權衡 十七卷 內府藏本 宋劉敞撰
春秋傳 十五卷 內府藏本 宋劉敞撰
春秋意林 二卷 內府藏本 宋劉敞撰
春秋傳說例 一卷 永樂大典本 宋劉敞撰

2.6.4 특정 서적의 후집이나 속집 또는 별집이 나오는 경우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이나 속집 또는 별집 그 밖에 보유적 성격을 띤 서적이 나오는 경우,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해 준 경우도 있고, 그 서적의 성격 별로 구분하여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다.

예:

山堂考索前集 六十六卷 後集 六十五卷 續集 五十六卷 別集 二十五卷 內廷藏本 宋章如愚撰
全芳備祖 前集二十七卷 後集三十一卷 編修勵守謙家藏本 宋陳景沂撰
名臣言行錄前集 十卷 後集 十四卷 續集 八卷 別集 二十六卷 外集 十七卷 浙江鄭大節家藏本
前集後集並朱子撰 續集別集外集李幼武所補編
源流至論 前集 十卷 後集 十卷 續集 十卷 別集 十卷 內府藏本 前集十卷後集十卷續集十卷 宋林
駟撰 別集十卷宋黃履翁撰

3. 결 론

본 논문은 중국 청나라 건륭제 때 편찬된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1795년)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였다. 각 저록의 서지적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판본,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안어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제표시는 흙정서(欽定書), 어정서(御定書), 어제서(御製書) 등에 대해 ‘흙정(欽定)’, ‘어정(御定)’, ‘어제(御製)’, ‘어찬(御纂)’, ‘어주(御注)’ 등을 서명 앞에 관기(冠記)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정 서명이 별칭을 지닌 경우 ‘一名’을 관기하여 그 별칭을 표시해 준 사례도 있었다.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卷數)인 책수(冊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완질(完帙)의 권수표시를 하되, 완질이 아닌 경우에는 해제에서 밝혀준 경우도 있었고, 권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無卷數’라고 표시하였다.

판본 표시는 목판본, 활자본 등과 같은 판본의 명칭이나 초판, 재판 등과 같은 판차가 아닌 저록의 대상이 된 서적의 출처를 의미하는 것이다. 『총목』에서는 다양하게 판본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동

목록이 편찬된 청나라 때 편찬된 흠정서, 어정서, 어찬서, 명찬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총목』에 수록된 판본은 유형에 따라 관원채진본(官員採進本), 개인정송본(個人呈送本), 통행본(通行本), 내부분(內府本), 영락대전본(永樂大典本)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관원채진본은 각 지역의 관리가 해당 지역에서 서적을 찾아내서 진상한 서적으로서 대개 ‘관직명+採進本’의 형식으로 기입하였고, 개인정송본 개인 소장가 또는 장서가가 정송(呈送)한 서적으로서 ‘지역명+성명+家藏本’, ‘관직명+성명+家藏本’, ‘지역명+아무개家+장서각명+藏本’, ‘관직명+성명+購進本’, ‘관직명+성명+刊本 또는 家刊本’, ‘관직명+성명+進呈本’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통행본은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적으로서 ‘通行本’이라고 표시하였으며, 내부분은 궁중에서 소장하거나 관각한 서적으로서 ‘內府藏本’, ‘內廷藏本’, ‘內部刊本’ 등으로 표시하였고, 영락대전본은 『영락대전』에서 뽑아 낸 서적으로서 ‘永樂大典本’이라고 표시하였다.

저자의 소속 왕조 및 저작연대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였다. 『총목』이 편찬된 시기인 청나라 때 편찬된 서적의 경우 저자명 앞에 ‘國朝’라고 표시하였고, 청나라 때 간행된 어정서, 어찬서, 명찬서 등의 경우 역조(歷朝)명을 생략하고 연호를 붙였다. 서양인이 편찬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西洋人’ 또는 ‘西洋’이란 말을 관기한 경우도 있었으며, 저작의 편찬 연대를 모르는 경우, ‘不著時代’, ‘莫詳時代’, ‘無時代’, ‘原本不題撰人時代’ 등 다양하게 표시하거나, 아예 그 시대표시를 생략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대개 저자가 불분명하여 시대표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와 판본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하여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표시하였고, 저자가 다른 이름을 지닌 경우에는 ‘一名’을 관기한 다음에 그 해당 이름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총목』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찬서(御撰書)와 어제서(御製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해당 황제를 관기하고 ‘御定’, ‘御撰’, ‘御製’, ‘御纂’, ‘御注’, ‘御選’ 등을 붙여서 표시하였다. 2) 명찬서(命撰書)는 ‘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신하명+동+봉칙+저작역할어(臣下名+同+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차+관직명+신하명+등동+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官職名+臣下名+等同+奉勅+著作役割語)’, ‘연호+연월+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年次+月+官職名+臣下名+

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연호+중+관직명+신하명+등+봉칙+저작역할어(年號+中+官職名+臣下名+等+奉勅+著作役割語)’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3) 지위나 품격이 빼어난 인물인 경우, 저자의 성 다음에 이름 대신 덕망 높은 큰 스승을 가리키는 존칭인 ‘子’를 붙인 경우가 있는데, ‘성+자(姓+子)’ 또는 ‘호+성+자(號+姓+子)’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4) 여성저자의 경우 ‘성+명(姓+名)’ 또는 ‘성+씨(姓+氏)’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황후의 경우는 ‘시호+황후(諡號+皇后)’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5) 불가서적 또는 승려가 저술한 서적인 경우, 저자명 앞에 승려를 뜻하는 ‘釋’ 또는 ‘僧’을 관기하였다. 6)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 7) 저자 또는 편자 미상인 경우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밖에 부저편집자명씨(不著編輯者名氏), 부저찬인성명(不著撰人姓名), 부지하인소편(不知何人所編), 부저편집인명씨(不著編輯人名氏), 부저편록인명씨(不著編錄人名氏), 부저찬인성씨(不著撰人姓氏)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밖에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저자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 해제에서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자의 성(姓)이나 생존시기(生存時期)를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주(註)’, ‘주(注)’, ‘소(疏)’, ‘산정(刪定)’, ‘감수(監修)’, ‘전(箋)’, ‘속(續)’, ‘교보(校補)’, ‘속수(續修)’, ‘속증(續增)’, ‘집주(集注)’, ‘산정(刪正)’, ‘보(補)’, ‘산보(刪補)’, ‘증보(增補)’, ‘역(譯)’, ‘역진(譯進)’, ‘전(傳)’, ‘편차(編次)’, ‘보집(補輯)’, ‘해고(解詁)’, ‘집해(集解)’, ‘참수(參修)’, ‘중수(重修)’, ‘중편(重編)’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의 경우, 첫째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보면, 1)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표시하거나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 또는 ‘등동+저작역할어(等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으며,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여(與)’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병기하고 마지막에 동찬(同撰)이라고 표시하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 3) 역할이 다른 저자표시 사이에 ‘이(而)’자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었다. 셋째, 동일 유목 내에 동일저자의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나온 경우, 그 서적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열거하고 해제한 사례가 있었고, 그 서적을 각각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넷째, 특정 서적과 관련된 후집, 속집, 별집 또는 보유적 성격을 띤 서적이 나오는 경우,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도 있고, 그 서적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저자표시를

해준 경우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고전서총목』은 상당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으며, 중국의 목록기술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紀昀 等.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 김동민.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찬과 청초 학술사조의 변화 양상: 『四庫提要』 『經部』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7(2011. 8). 221-250.
- 金 鎬. “『四庫全書』와 『存目』에 收錄된 韓國人 著作과 그 文化意義.” 『中國文學研究』 40(2010. 6). 201-223.
- 金 鎬. “『四庫全書總目·集部總敘』와 『楚辭類敘』 譯註와 文學觀.” 『中國語文論譯叢刊』 38(2016. 1). 459-487.
- 당윤희. “청대(清代) 사고관신(四庫館臣)의 유학(儒學) 사상 고찰: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50(2012. 10). 401-440.
- 廖 勇. “文溯閣 『四庫全書』 成書時間考.” 『廊坊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30(2)(2014. 4). 63-65.
- 리상용. 『연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리상용. “『사고전서간명목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2013. 12). 151-183.
- 박영순. “『四庫全書總目』 詩文評類 提要의 문학 비평적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32(2005. 6). 427-445. 百度. <<http://baike.baidu.com>>.
- 白福春, 劉琨. “『四庫全書總目』 收錄古籍數量及卷數訂正.” 『圖書館學刊』 4(2016). 114-116.
- 樊美珍, 馮春生. “『四庫全書總目』 著錄底本來源統計.” 『上海高校圖書情報學刊』 2(1995. 6). 54-55.
- 신정근. “『四庫全書』는 실제로 全書인가?.” 『동양철학』 35(2011. 7). 99-126.
- 辛正根. “경학사와 학술사의 쟁점으로 본 『四庫全書總目提要』의 특징: 經部の 易類와 書類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5(2011. 9). 59-86.
- 呂 堅. “『四庫全書』 七閣成書時間考.” 『文獻』 3(1984. 3). 133-137.
- 이제우. “清代 『四庫全書總目』을 통해 본 ‘晚明小品’의 현상과 평가.” 『中國學研究』 26(2003. 12). 251-273.
- 李 晴. “淺論 『四庫全書』 在圖書館學方面的學術價值”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3(4)(1996). 34-37.
- 鄭錫元. “『사고전서』에 대하여.” 『인간과경험동서남북』 3(1991. 12). 232-260.
- 程惠新, 陳東輝. “2000-2014年 『四庫全書總目』 研究綜述.” 『圖書館工作與研究』 3(2016). 67-70.
- 趙秉忠, 白新良. “四庫全書總目簡介.” 『歷史教學』 6(1991). 53-55.

-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2012. 12). 111-153.
- 趙永來. “중국역사지리 문헌의 목록학적 분류와 그 기원의 연구: 正史의 『地理志』와 『四庫全書總目提要』 『史部』의 地理類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2(2012. 9). 155-192.
- 趙永來. “『사고전서총목』 사부의 분류체계에 관한 기원 연구: 사지목록의 사부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4(2009. 12). 491-527.
- 조장연.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子部に 보이는 학과별 분류와 평가: 儒家類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67(2011. 8). 251-282.
- 崔富章. “『四庫全書總目』 武英殿本刊竣年月考察.”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6(1)(2006. 1). 104-109.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
- Guy, R. Kent 저, 양희웅 역. 『四庫全書』. 서울: 생각의 나무, 2009.